



**Journal of Knowled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ystems**

ISSN 1975-7700

<http://www.kkits.or.kr>

## **Analysis on Effects Life Goal on Life Satisfaction by Mediating Negative Ego-identity Through Latent Growth Model**

**Young-Ju Hur<sup>\*</sup>**

*Professor, Dep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 **A B S T R A C 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a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go-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goal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used the data of Korean Children Youth Panel Survey(KYPS)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on 3th, 5th, 7th was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justice oriented goal of 3rd students of middle school, the lower negative ego-identity. And the higher achieve oriented goal, the higher negative ego-identity. Second, the higher justice oriented goal of 2nd students of high School and 1st student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greater changing ratio of negative ego-identity. And the higher achieve oriented goal of same times, the faller its changing ratio. Also, faller changing ratio of negative ego-identity is high satisfaction of life. Third, negative ego-identity partially mediate between justice oriented goal and life satisfaction, but it completely mediate between achieve oriented goal and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First, we must educate that adolescent have high justice oriented goal than achieve oriented goal. But we have to follow up on the research for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various goals. Second, we need to provide education of overcoming negative ego-identity and helping think and find answers about the meaning of life for high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

© 2020 KKITS All rights reserved

**KEY WORDS :** Justice oriented goal, Achieve oriented goal, Negative ego-identity, Life satisfaction, Latent growth model

**ARTICLE INFO:** Received 17 May 2020, Revised 27 May 2020, Accepted 11 June 2020.

<sup>\*</sup>Corresponding author is with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91 Daehak-ro Seonghwan-eup Sebuk-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31020, KOREA.

*E-mail address:* [youngju@nsu.ac.kr](mailto:youngju@nsu.ac.kr)

## 1. 서론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다[1].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기 및 성인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긍정적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2]. 그러나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세계 15개 국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 결과는 한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3]. 세계 7개국의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도 한국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브라질이나 일본과 함께 세계 평균인 52%에 못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 더욱이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현재 41.5%까지 낮아져 있다. 선행연구들은 성적과 입시만을 강조하는 학교문화와 취업의 어려움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5].

이에 우리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사실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개입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이를 잘 조절하려는 노력은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다.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 타인과의 관계성[6], 자아탄력성, 봉사활동 만족도[7], 희망과 영성[8], 또래지지[9] 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반면, 학교폭력 피해와 학대경험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10].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과 함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삶의 목표성향이다. 대표적으로 삶의 목표의 발달이 삶의 만

족도와 정적 관계를 지닌다고 설명한 연구[11], 내재적 삶의 목표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외재적 삶의 목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2]가 있다. 그러나 삶의 목표성향과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한 시기에만 한정되어 있어 성장 과정에 따른 변화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단연구를 통해 삶의 목표성향이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로서, 인지적이면서 주관적인 평가이다[13]. 삶의 만족도가 인지적 평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주관적 행복을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로 삶의 만족도를 꼽고 있으며[14], 이것은 개인의 정서라는 행복의 또 다른 요인과는 달리 인지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물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은 상관이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삶의 만족은 삶의 가치관과 목표 등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인지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개인의 정서는 무의식적 동기나 생리적 상태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5]. 결국 삶의 만족은 주관적 안녕감 중 인지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을 지닌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 초기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상태에 따라 변화하므로[16],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2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2.1 삶의 목표성향

삶의 목표성향은 많은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이미 규명되고 있다[17].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높은 수준의 만족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따라 개인의 안녕감과 삶의 만족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이루어졌다[18]. 또한 삶의 목표가 뚜렷할수록 그리고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19]. 그 이유는 목표가 뚜렷한 청소년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심리적 안정감을 잃지 않으며, 쉽게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다[20].

그러나 모든 목표가 삶의 만족에 동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21]. 즉, 어떤 삶의 목표를 어느 정도 분명하게 확립하고 있는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이다[22]. 선행연구들은 삶의 목표를 경쟁적 목표와 비경쟁적 목표[23], 성취 지향 목표와 삶 지향 목표[11],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24]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도 타인의 인정, 부의 축적, 진학의 성공, 직업적 성공 등을 추구하는 목표의식을 성공지향 삶의 목표로 규정하고, 주변 환경의 보호,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의 추구 등 사회적 정의와 구성원들과의 공존을 지향하는 목표의식을 정의지향 삶의 목표로 규정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이 정의지향 목표가 높은 수준의 안녕감과 성공지향 목표가 낮은 수준의 안녕감을 예

측한다고 보고하였다[25].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 연구는 성공 추구형 목표와 정서적 안정은 부적으로 연관되고 사회적 기여 및 자기 성장 목표와 공동체 의식 향상이 긍정적으로 연관된다고 하였다[26]. 대학생들은 성공지향 목표를 중시하는 대학생은 성취동기와 학업 자기개념이 높고, 삶 지향 목표를 중시하는 대학생은 삶의 의미와 안녕감이 높았다고 하였다[22]. 그러나 성공지향 목표가 삶의 만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많다[27]. 특히 미국 청소년들은 외재적 목표가 삶의 목표와 상관이 없었던 반면, 중국과 한국 청소년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28].

### 2.2.2 부정적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 함께 자아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이다[29].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개인적 답으로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고유성이고 이 본질적인 속성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면 깊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며, 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자신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31]. 자아정체감을 확립한 청소년은 정체감 유예에 있는 청소년보다 신경증 등을 보일 확률이 낮고[32], 인생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한다.

자아정체감이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33], 연령에 따라 발달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통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특성도 지닌다[34].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이 가진 삶의 목표와 연

관되어 있다[31].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명확하게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수록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미래에 대한 확신, 자신에 대한 수용, 목표지향, 친밀함, 주도성이 뚜렷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내면적인 요인인 자아정체감은 주관적인 평가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아정체감은 삶의 만족도에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1].

### 3. 연구내용 및 방법

#### 3.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중에서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표본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중등 3학년(3차)이었던 2012년 조사자료, 고등학교 2학년(5차)이었던 2014년 조사자료,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후(7차)였던 2016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패널조사는 2016년 마무리되었으므로, 청소년의 종단적 변화를 볼 수 있는 최근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몇 년 후에는 더 최신의 종단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조사차수별로 연구에 활용된 사례 수는 각각 2,256명, 2,091명, 1,881명이다.

#### 3.2 연구변수

삶의 목표를 측정하는 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통해 분류된 2개의 요인 중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존’을 ‘정의지향 목표’로 재정의하였으며,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성공지향 목표’로 재정의

하였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역채점 하였으므로, 숫자가 클수록 정의 구현을 높게 지향한다거나 성공을 높게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근사카이제곱 값은 8438.549(df=105, p=.000)이며,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검정값이 .883(p=.000)이어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총 2개의 성분을 추출하였으며, 2개의 주성분으로 전체 변이의 57.1%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된 성분 행렬 결과 및 신뢰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삶의 목표 지향성의 요인분석 결과 및 신뢰성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s and reliability of life goal

문항	요인		기존 정의	재정의	신뢰도
	1	2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764		사회적 정의와 공존	정의지향	.806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675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603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	.564		사회적 경제적 성공	성공지향	.741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		.726			
부유하게 살고 값비싼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704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579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 쉽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로 질문되었다.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역채점 하였으므로, 숫자가 클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3개 문항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로 질문되었다. 4점 척도로 조사된 것을 역채점 하였으므로, 숫자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분포조건(왜도<2, 첨도<4)을 만족해야 하는 데 (Hong, Malik & Lee, 2003), <표 2>처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표 3>과 같이 모든 상관계수값(r)이 0.6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2. 변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 첨도

Table 2.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of variables

변인	중3			고2			고교 졸업 후 1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M (SD)	왜도	첨도
삶의 목표(정의지향)	3.19 (.48)	-.15 2	.27	3.16 (.44)	-.04 4	.610	3.16 (.44)	-.12 0	.401
삶의 목표(성공지향)	2.76 (.59)	.063	.20	2.70 (.54)	-.07 4	.272	2.70 (.54)	-.07 4	.272
부정적 자아정체감	2.44 (.50)	.040	.54	2.35 (.45)	-.15 6	.321	2.34 (.48)	-.04 5	.249
삶의 만족도	2.85 (.68)	-.03 3	-.14 4	2.81 (.59)	.090	.152	2.81 (.59)	.090	.152

표 3. 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삶의 목표 (정의지향)			삶의 목표 (성공지향)			부정적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A	B	C	A	B	C	A	B	C	A	B	C
정의지향 목표	A	1										
	B	.347**	1									
	C	.202**	.305**	1								
성공지향 목표	A	.273**	.065**	.018	1							
	B	.097**	.204**	.048*	.289**	1						
	C	.060**	.047*	.188**	.229**	.356**	1					
부정적 자아정체감	A	-.065**	-.072**	-.047*	.190**	.044*	1					
	B	-.078**	-.093**	-.079**	.002	.076**	.055**	.371**	1			
	C	-.069**	-.078**	-.085**	.004	.017**	.0829**	.29416**	.416**	1		
삶의 만족도	A	.262**	.078**	.078**	.119**	.007	.017	-.085**	-.177**	-.130**	1	
	B	.142**	.149**	.061**	.0288**	-.053	-.028**	-.158**	-.269**	-.183**	.422**	1
	C	.110**	.078**	.204**	.0213	-.036	-.025**	-.148**	-.218**	-.264**	.32430**	.430**

A: 중3 B: 고2 C: 고교 졸업 후 1년차

\*p<0.05, \*\*p<0.01, \*\*\*p<0.001

### 3.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첫째, 변인별 왜도와 첨도,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다변인 정규분포성과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둘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 LGM)의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활용하여 정의지향 목표성향, 성공지향 목표성향, 부정적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이 무변화모형인지 선형변화모형인지를 결정하였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의 조건모형(conditional model)을 통해, 정의지향 목표성향, 성공지향 목표성향, 부정적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결측치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정보최대우도

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하였다. 또한 적합도 평가를 위해 RMSEA와 CFI, TLI를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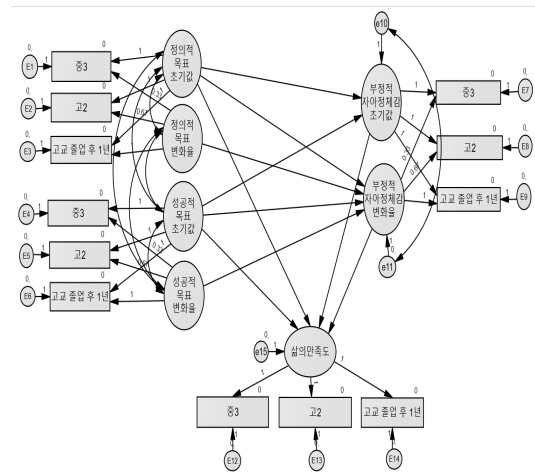
정의지향 목표, 성공지향 목표, 부정적 자아정체감, 삶의 만족도의 세 시점에서의 평균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 요인의 변화모형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별 발달계획적 무변화모형 및 선형변화모형 적합도  
Table 3. Fitness on non-change and linear model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variables

구분	TLI	CFI	RMSEA	초기값		변화율	
				평균 (표준 오차)	분산 (표준 오차)	평균 (표준 오차)	분산 (표준 오차)
정의 지향 목표	무변화	.879	.920	.063	3.169* **	.060** *	
	선형변화	.948	.991	.041	3.187* **	.105** *	-.017 **
성공 지향 목표	무변화	.888	.925	.060	2.712* **	.087** *	
	선형변화	.963	.994	.034	2.746* **	.113** *	-.032 ***
부정적 자아 정체감	무변화	.822	.881	.094	2.374* **	.082** *	
	선형변화	.906	.984	.068	2.424* **	.101** *	-.050 ***
삶의 만족도	무변화	.950	.967	.054	2.830* **	.149* **	
	선형변화	.903	.984	.076	2.834* **	-.001 **	.207* **

정의지향 목표, 성공지향 목표,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좋았고, 삶의 만족도는 무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3, 고2, 고교 졸업 후 1년 모두 정의지향 목표가 성공지향 목표보다 높게 확립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요인의 변화모형을 확인하였으므로, 측정변수 및 요인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초기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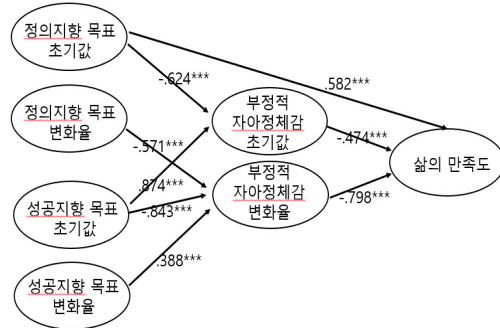


$\chi^2=428.436(df=47 p=.000)$  TLI=.818 CFI=.890 RMSEA=.059

그림 1. 초기모형  
Figure 1. Initial model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초기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변수간 경로계수를 통해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종모형을 <그림 2>와 같이 결정하였다. 유의미한 경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정의지향 삶의 목표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이 낮고 성공지향 삶의 목표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이 높았다. 정의지향 목표가 중3, 고2, 고교

졸업 후 1년이 지나면서 점점 높아져도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변화율은 감소했고, 성공지향 목표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높아질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변화율은 증가했다. 중학교 3학년 때,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변화율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높았다. 또한, 정의지향 목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부분매개 관계다. 그러나 성공지향 목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완전매개 관계다.



\*p<0.05, \*\*p<0.01, \*\*\*p<0.001

그림 2. 최종모형  
Figure 2. Final model

표 5. 초기모형의 경로계수  
Table 5. Path coefficient of initial model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부정적 자아정체감_초기값 ← 정의지향 목표_초기값	-.503	-.624	.097	-5.190 ***
부정적 자아정체감_변화율 ← 정의지향 목표_초기값	.196	.253	.133	1.476
부정적 자아정체감_변화율 ← 정의지향 목표_변화율	-.400	-.571	.084	-4.760 ***
부정적 자아정체감_초기값 ← 성공지향 목표_초기값	.647	.874	.106	6.117 ***
부정적 자아정체감_변화율 ← 성공지향 목표_초기값	-.600	-.843	.138	-4.341 ***
부정적 자아정체감_변화율 ← 성공지향 목표_변화율	.229	.388	.052	4.403 ***
삶의 만족도 ← 정의지향 목표_초기값	.477	.582	.130	3.656 ***
삶의 만족도 ← 성공지향 목표_초기값	-.378	-.502	.176	-2.149
삶의 만족도 ← 부정적 자아정체감_초기값	-.481	-.474	.094	-5.120 ***
삶의 만족도 ← 부정적 자아정체감_변화율	-.843	-.798	.178	-4.728 ***

p<0.05, \*\*p<0.01, \*\*\*p<0.001

###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해 삶의 목표 지향성이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정의지향 목표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이 낮고 성공지향 목표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초기값이 높았다. 그리고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삶의 목표가 뚜렷하고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주장한 연구들[18-20]과 달리 어떤 목표를 수립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주장한 연구들[22,24]과 동일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외재적 목표 또는 성취지향 목표가 삶의 만족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11,21,28]과는 다른 결과이다.

오히려 중학생의 경우 내재적 목표, 삶지향 목표는 높은 수준의 안녕감과 만족도와 관련되고, 외재적 목표, 성취지향 목표는 부정적 자기개념, 낮은

수준의 안녕감이나 만족도와 관련된다. 선형연구 [26]와 동일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공지향 목표를 지양하고 정의지향 목표를 높게 형성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시기는 고등학교 입학에 앞두고 있는 시점이므로 입시와 성공, 경쟁중심의 가치관을 주입하기보다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중심의 가치관을 갖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3학년을 지나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졸업 1년 후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의지향 삶의 목표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증가율은 줄어들었고, 성공지향 삶의 목표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이 명확하게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뚜렷했다고 보고한 선형연구들[32,33]과 같은 결과이지만, 그 영향력은 목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과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자아정체감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쉽게 변하지 않지만[33], 연령에 따라 발달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통합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적 특성도 지닌다[33,34]. 따라서 삶의 목표 확립 수준과 함께 목표의 내용까지는 관심을 둬으로써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2학년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1년 후는 청소년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대학 입학의 실패로 다시 입학준비를 하기도 하며,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거나 다시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등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성공지향 삶의 목표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정의지향 삶의 목표를 확립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중3, 고2, 고교 졸업 1년 후 모두 정의지향 목표가 성공지향 목표보다 높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목표의 내용 이론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데[21,25], 아직 어떤 수준이 적절한 균형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한 점은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변화율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아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비교적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한 연구들[35,36]과는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정의지향 목표와 삶의 만족도를 부분 매개하지만, 성공지향 목표는 완전 매개하였다. 이와 연구 결과는 청소년이 수립한 삶의 목표 수준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32,33]과 자아정체감이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한 연구들[37,38]을 연결하여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까지 밝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의지향 목표를 더 높은 수준까지 설정하도록 돕고, 성공지향 목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극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31]. 따라서 청소년이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 A. Kim. *Adolescent self-esteem, career identity, school learning activity and life*

- satisfaction change: From middle school to high school.*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2, pp. 507-514, 2018.
- [2] C. Proctor, P. A. Linley, and J. Maltby, *Very happy youths: Benefits of very high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98, No. 3, pp. 519-532, 2010.
- [3] B. J. Lee, S. S. Kim, and J. J. Ahn, J. Yoo, *A report on Korean children's quality of life, save the children,* Seoul University Social Welfare Research Center, 2015.
- [4] I. S. Oh, J. H. Son, and Y. K. Cho, *A study analyzing the experience of sophomore syndrome among college students based on grounded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 49. No.2, pp. 27-58, 2018.
- [5] Y. K. Cho, I. S. Oh, *The relation of life goal types and life satisfactions depending on perceived types of parenting style b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1, pp. 1327-1346, 2019.
- [6] M. Shin, S. H. Jeon, and M. S. Yoo.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n you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7, No. 9, pp. 131-150, 2010.
- [7] J. H. Kim.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on community consciousness and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14, No. 1, pp. 41-62, 2012.
- [8] S. C. Marques, S. Lopez, and J. Mitchell. *The role of hope, spirituality and religious practice i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Longitudinal finding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14, No. 1, pp. 251-261, 2013.
- [9] J. Y. Huang, K. Y. Wang, and T. Ringel-Kulka.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sian American adolescents analysis of add health data.* Springer Plus, No. 4, p. 216, 2015.
- [10] B. K. Park, and P. S. Noh.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0, pp. 181-203, 2016.
- [11] J. H. Shin, E. J. Seo, and Y. K.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life goal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2, pp. 255-276, 2011.
- [12] H. J. Noh, and W. S. Sohn. *Relationships of primary school students' intrinsic and extrinsic life goals with their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1, No. 2, pp. 355-378, 2014.
- [13] E. Diener.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31, No. 2, pp. 103-157, 1994.
- [14] E. Diener, C. N. Scollon, and R. E. Lucas. *The evolving concept of subjective well-being: The multifaceted nature of happiness.* Advances in Cell Aging and Gerontology, No. 15, pp. 187-219, 2013.
- [15] H. S. Oh.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mployment prospects, life aims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4, No. 4, pp. 19-37, 2008.
- [16] F. Fujita, and E. Diener. *Life satisfaction set-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88, pp. 158-164, 2005.
- [17] C. R. Snyder, and S. J. Lopez. *Positive psychology: The scientific and practical explorations of human strengths*. Thousand Oaks. CA: Sage, 2007.
- [18] R. A. Emmons, *The psychology of ultimate concerns: Motivation and spirituality in personality*. New York: Guilford Press. 1999.
- [19] S. A. Yoon,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life goal and parenting attitude, emotional problem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1, pp. 909-932, 2016.
- [20] D. H. Kim, *A Purpose in life and society for 21st century Korean adolescents: Win-win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Journal of East Asian Social Thoughts, No. 30, pp. 257-289, 2014.
- [21] Y. N. Ko,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goal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the search for meaning and the presence of meaning*.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23, No. 4, pp. 161-182, 2017.
- [22] H. Y. In, and H. J. Kil, *Life goal profiles and their relations with vocational identity,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14, No. 1, pp. 25-49, 2017.
- [23] B. W. Headey,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86, No. 2, pp. 213-231, 2008.
- [24] T. Kasser, and R. M. Ryan,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65, pp. 410-422, 1993.
- [25] R. A. Sheldon, and T. Kasser, *Psychological threat and extrinsic goal striving*. Motivation and Emotion, No. 32, pp. 37-45, 2008.
- [26] H. J. Lee, and Y. J. Chae, Yoo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in youth activity involvement, social-emotional aspects, and life goal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2, pp. 173-207, 2014.
- [27] T. Martos, M. S. Kopp, *Life goals and well-being: Does financial status matter? Evidence from a representative Hungarian sampl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05, No. 3, pp. 561-568, 2012.
- [28] N. Lekes, I. Gingras, F. L. Philippe, R. Koestner, and J. Fang,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9, No. 8, pp. 858-869, 2010.
- [29] M.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1965.
- [30]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31] M. S. Jeon, and T. K. Kim, *The effect of life-goal of youth on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y: A mediating effect of self-identity and behavior control*.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Vol. 12, No. 3, pp. 137-146, 2014.
- [32] J. E. Cote, and C. Levine,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go identity status paradigm*. Developmental Review, Vol. 8,

No. 2, pp. 147-184, 1988.

- [33] H. S. Park,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related to life goals of yout: Focusing on satisfaction with academic achievement, peer relationship, parenting style, and self-identity*.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Daegu University, 2019.
- [34] J. A. Wagner, *Formal operations and ego identity in adolescence*. *Adolescence*, Vol. 22, No. 85, pp. 23-35, 1987.
- [35] S. J. Kim, K. B. Yoon.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7, No. 2, pp. 271-296, 2016.
- [36] J. S.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adolescents` rights guarantee, self-esteem and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2, No. 1, pp. 35-59, 2010.
- [37] E. Diener, M. E. Seligman,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Vol. 13, No. 1, pp. 81-84, 2002.
- [38] H. Hwan, Y. H. Kim,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n happiness determinants among domestic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7, pp. 1-28,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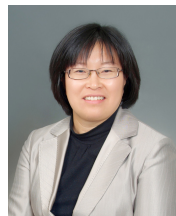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삶의 목표가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허영주**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요 약**

이 연구는 종단연구를 통해 삶의 목표 지향성이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중에서 3년차, 5년차, 7년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3학년 시기는 정의지향 목표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낮고 성공지향 목표성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높았다. 그리고 부정적 자아정체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중학교 3학년을 지나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졸업 1년 후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의지향 삶의 목표가 높아질수록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증가율은 줄어들었고, 성공지향 삶의 목표가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또한 부정적 자아정체감의 변화율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부정적 자아정체감은 정의지향 목표와 삶의 만족도를 부분 매개하지만, 성공지향 목표는 완전 매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성공지향 목표보다는 정의지향 목표가 높게 형성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러 목표들 간의 균형을 위해 각각의 목표가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적 자아정체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Young-Ju Hur** received the Ph.D. degree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Science from the Dongguk University in 1999. She has been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at Namseoul University since 2008. Her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curriculum, youth education.

E-mail address: youngju@nsu.ac.kr